

제주도 나주 출자 뱀 신앙 연원 일고찰 - 조선조 나주목 일대 용신 신앙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이현정*

- I. 들머리에
- II. <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 제창마을 당산제와 이진곡 해신제
- III. <토산으드렛당본풀이>: 대망(大蟒) 전승과 금성산 용신 신앙
- IV. 맺으며

<국문초록>

제주도 뱀 신앙을 대표하는 <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와 <토산으드렛당본풀이>의 신격인 천구아구데맹이는 단적인 뱀 그 자체는 아니며, 본디 용신에 가까운 존재다. 그 까닭을 이 글에서는 두 신앙의 공간적 연원과 나주목 일대의 용신 신앙을 연계하여 살피는 과정으로 풀었다. 각 신앙 형성에 관여한 용신 신앙의 실재와 전모는 신격의 출자 공간, 독특한 신앙적 속성과 연관된 역사적·민속적·문헌적 자료들을 건주는 선에서 재구하였다.

먼저 <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와 관련 신앙의 연원 기반은 조상신·당신(堂神)·해신의 면모를 아우르는 신격 특성과 실제 나주 제민창의 소재지였던 안창동 제창마을 신앙 간의 접점을 살피는 것으로 토했다. 안창동 제창마을은 고려조 이래 양암과 용진단을 구심점으로 한 용신 신앙이 매우 성행하였던 곳이다. 이 같은 전통적·토착적 용신 신앙은 후대에 제민창과 관창(官倉), 교역(交易), 수운(水運), 해로(海路) 등의 문제와 결부하며 신앙적인 파생과 분화를 이루어 <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와 관련 신앙의 기반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제주로 이진곡(移賑穀)을 실어 나르는 배의 입·출항 시 치러졌던 해신제 역시 신앙적 기반이 되어 본풀이 서사에 혼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적을 남겼다.

<토산으드렛당본풀이>와 관련 신앙의 연원 기반은 본풀이 상에서 확인되는 신의 변모, 즉 천구아구데맹이와 바둑돌, 용신 신앙 간의 연결 고리를 짚는 과정으로 풀었다. 본풀이 이본에 전하는 특별한 전반부 서사와 『어우야담』에 수록된 대망(大蟒) 이야기, 야담집에 널리 수록되었던 신숙주와 청의동자 이야기, 신숙주의 출생지인 나주 금안마을의 민간 신앙과 용신 신앙의 관계 등을 살필 때, 이 같은 토산으드렛당신의 변모는 물론 나주 금성산 일대의 신앙적 저변들이 용신 신앙에 가닿는 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두 신앙은 나주목 일대의 토착적·전통적 용신 신앙을 저류로 두되, 연원 지역과 제주사람들과의 신앙적·역사적 교류를 거치며 제주도 뱀 신앙 체계로 편승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두 신앙의 연원을 단적인 가신신앙 또는 뱀 신앙으로 한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두 신앙은 각 출자 지역에서 비롯된 용신 신앙이 제주도로 유입된 뒤, 토착적 뱀 신앙 혹은 선주민들의 뱀 신앙과 교섭하며 지금의 구색을 갖추었을 여지가 크다.

핵심어: 제주도, 뱀 신앙, 용신 신앙, 천구아구데맹이, 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 토산으드렛당본풀이, 나주 제민창, 안창동 제창마을, 양암, 나주 금성산, 금안마을, 신숙주

1. 들머리에

이 글에서는 ‘제주도 뱀 신앙’ 가운데 ‘나주 출자 내력’을 가진 두 신격, ‘나주기민창조상’과 ‘토산으드렛당신’을 대상으로 각 신앙과 나주목 일대에 전승되었던 용신 신앙 간의 연계성을 톺는다. 본풀이 상에 언급된 특정 지역(또는 특정 장소)과 용신 신앙의 연결 고리를 다양한 역사적·민속적·문헌적 근거들을 활용하여 풀어내는 일이 논의의 골자다.

‘나주기민창조상’과 ‘토산으드렛당신’은 육지부에서 유입된 ‘뱀 신앙’의 소종래를 좇을 수 있는 대상으로 으레 함께 조명되어 왔다. ‘나주 출자 내력’을 지닌 신격이자 ‘천구아구데맹이’라 불리는 공통점을 지녔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주기민창조상’은 조상신, ‘토산으드렛당신’은 당신의 범주에 속하는 데다, 엄연하게 ‘나주 기민창’과 ‘나주 금성산’이라는 상이한 출자 내력을 갖는다. 그래서인지 기존 연구들은 나주기민창조상은 업 신앙 또는 철룡(터주) 신앙의 변이형, 토산으드렛당신은 금성산을 중심에 둔 산신 신앙의 전파·이동형으로 두 신앙의 연원을 이분하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그러다 비교적 최근에는 두 신격의 연원적 유사성을 용신 신앙 또는 해신 신앙의 범주에서 찾고자 한 성과들이 도출되었다. 나주 일대의 토착 신앙들이 용신 신앙적 속성을 강하게 띠는데, 이것이 지역 또는 신앙 집단의 특성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두 연구는 역사적 사실이냐 신앙적 실제에 기반한 조명은 아니다. 이에 논지를 구체적으로 예증할 만한 다양한 근거들을 찾아 밝히는 작업이 요구된다.

먼저 허남춘은 토산으드렛당신을 금성산신이자 용신으로 상정하였다. 산신이지만 바다를 가까이 두고 있어 해신의 성격을 함께 지닐 수 있었고, 뱀사람들이 순항을 위하여 치제하였다는 점에서 용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논지다. 더불어 나주기민창조상신앙 역시 같은 맥락에서 나주 일대에 널리 퍼져 있었던 용신 신앙이 관여한 결과물이라 하였다.¹⁾

다음으로 홍태한은 서울곳에서 ‘금성’으로 지칭되는 신격은 나주에 신앙적 근간을 두며, 토산으드렛당신도 이 일련선 상에서 전파·분화된 존재일 가능성을 점쳤다. 특히 금성당 유래담 가운데 마포나루, 염창(鹽倉), 수운, 뱀길 순항 등과 관련된 각편이 전승되며, <토산으드렛당본풀이>에 묘사되는 신격의 외양이 대용신에 가깝다는 근거를 들어, 해당 신격을 산신이 아닌 대용신으로 상정하고 그 연원을 나주 일대의 터주 신앙으로 달리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내세웠다.²⁾

- 1) 허남춘은 금성산신을 위하는 제사를 무당들이 집전하였던 점, 금성산신에게 치녀를 바치는 행위가 풍요를 위하여 용신에게 인신공회를 바치는 희생제외와 닮아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신격의 정체를 용신 혹은 사신이었을지 모른다는 추정을 더하였다. 허남춘, 『칠성과 부군(府君) 신앙, 뱀 신앙』, 『비교민속학』 58, 비교민속학회, 2015, 36~37면.
- 2) 홍태한, 『서울곳 신령 ‘금성’의 정체성 고찰』, 『실천민속학연구』 13, 실천민속학회, 2018, 185~198면. 박홍주, 양종승 등도 뱀사람 혹은 해상물류유통을 담당하던 상인들이 활발하게 오갔던 염창동(두미압), 마포나루 일대를 기점으로 한강 유역에 금성 신앙이 널리 전파되었으며, 관련 신당들도 다수 설립되었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박홍주, 『서울 마을곳의 유형과 계통』, 『한국무속학』 12, 2006, 119~175면; 사머니즘사상연구회 엮음, 양종승, 『금성당(錦城黨)』, 『사머니즘과 신당』, 민속원, 2020, 124~133면.

실제로 두 신앙은 용신 신앙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본풀이 상에서 나주기민창조상과 토산으드렛당신은 바닷길의 풍운조화를 주재한다. 이는 뱀신보다 용신의 면모에 가깝다.³⁾ 본풀이 상에서 신격과 관계를 맺는 인물들이 바다 생업이나 바닷길과 연관된 행보를 보인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기존 논의를 보완하면서 이 지점들을 제대로 풀어 보기 위하여, <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 <토산으드렛당본풀이>를 토대로 각 신앙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나주목 관련 사료, 야사 기록, 민속 조사 자료 등을 두루 살피고자 한다.

이처럼 두 신앙을 관통하는 용신 신앙의 전모를 다양한 역사적·실제적 정황들에 근거하여 조금이나마 구체화 하는 일은 관련 논의의 연장선에서 보다 명확한 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다. 이에 기존 논의들의 의의를 제고할 수 있어 유의미하다. 또한 두 본풀이와 신앙이 형성·전승되어 온 맥락들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계기 역시 되어주리라 기대한다.

II. <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 :

제창마을 당산제와 이진곡 해신제

제주도 무속에서 나주기민창조상은 친구아구데맹이[大鱗]라 불리는 ‘뱀신’이자 여신이며, 특별한 출자 내력을 가진 유입신이다. <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에 따르면, 이 신격은 본디 “나주 기민창 동서남북 창고 안을 지키던 무곡섬의 조상”이었다. 선행 연구들은 <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가 육지부의 업신앙(업구령이) 또는 철룡 신앙이 제주도로 유입된 사정을 함의한다고 보았는데,⁴⁾ 이는 업신양류와 안칠성·뱃실청 신앙 간의 직능적·신앙

3) <토산으드렛당본풀이>에서 토산으드렛당신은 강 씨 성방, 오 씨 성방이 바둑돌로 변하여 종로 네 거리에 있었던 자신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제주도로 돌아가려 하자, 바닷길에 풍운조화를 일으켜 배가 뜨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이 신격은 입도한 뒤에도 자신을 위한 단골이 없자 바닷길에서 왜선을 전복시키는 불리준다. 제주도 무속에서 당신은 열두흉협, 풍운조화를 일으키는 대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개 인간에게 병과 광증 등을 일으키는 존재로 묘사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뱃길 운항과 관련하여 풍운조화를 일으키는 신격 면모는 일견 해신적 속성을 특정한다고 볼 만하다.

4)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에서는 구령이를 조상으로 묘사자 집안에서 부와 재물이 늘어

형태적 교집합에 근거한 해석이다. 하지만 나주기민창조상의 곡신(穀神)적 속성과 근간을 ‘업 신앙’ 또는 ‘뱀 신앙’만으로 특정할 수 없는 유다른 지점들이 본풀이 상에서 확인된다. 자세한 논의에 앞서 <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의 주요 서사를 아래에 단락별로 제시한다.⁵⁾

- ① 순흥 안 씨 삼형제가 먹고살고자 제주로 입도한다. 큰형님은 어림비(애월읍 어음리), 둘째형님은 과납(애월읍 납읍리), 막내는 서늘(조천읍 선흘리)에서 자손을 벌여 살게 된다.
- ② 조천관(조천읍 조천리)에도 순흥 안 씨 자손이 일가를 이루었는데, 어느 때에 수십 척의 배를 부릴 정도로 천하거부가 되어 안 씨 선주라 불리는 이가 있었다.
- ③ 안 씨 선주는 가난한 이들에게 곧잘 선행을 베풀었다.
- ④ 어느 해 제주섬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 제주 백성 모두가 굶어 죽을 처지에 이른다. 제주 목사가 해결책을 궁리하던 중 안 씨 선주의 재산이면 제주 백성이 사흘은 먹고 남는다는 말을 듣고 안 씨 선주를 불러 그의 재산으로 백성들이 살 방도를 마련하라 명한다.
- ⑤ 안 씨 선주는 일행을 모아 수 척의 배에 금전을 가득 싣고 무곡을 구하러 길을 떠난다. 먼저 영암 덕진드리 배진고달또에 배를 대고 사방으로 무곡을 구했으나 헛일이었다. 마지막으로 들어선 나주 고을조차 무곡이 없었다.
- ⑥ 그러던 중 안 씨 선주는 나주 고을 한 주막에서 우연하게 범박한 양반을 만난다. 양반은 나주 기민창고에 삼 년 묵은 무곡을 팔지 못하여 고민하던

났다는 서사 열개를 갖춘 본풀이 각편—<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 <안판관·고대장본>, <우렁이신씨본>—을 부근·칠성 유형으로 묶고 있다. 해설에 따르면 부근·칠성 유형은 구렁이를 조상으로 실제로 삼고 숭앙하는 업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업인 재산(財神)으로 간주되는 동시에 나가고 들어섬에 따라 집안의 흥망을 좌우하는 구체적인 특성과도 연계되므로 “해당 유형은 업신앙의 변형된 형태”다.(김현선·현용준·강정식, 『제주도 조상신 본풀이연구』, 보고서, 2006, 140~141면.) 또한 『濟州道 뱀神話와 信仰 研究』는 제주도의 밭 칠성 신앙, 경상도 지역의 칠룡(청룡, 철룡) 신앙 간에 용사신앙적 성격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주도의 사신신앙은 본래 본토부의 용사 신앙인 풍농신 신앙에 그 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현용준·현승환, 『濟州道 뱀神話와 信仰 研究』, 『耽羅文化』 15號,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5, 46~47면.)

5) <나주 기민창 조상(羅州 濟民倉 祖上)본>,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도서출판 각, 2007, 673~682면. 필자는 기왕의 연구에서 <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를 다룬 바 있다.(이현정, 『조천리 순흥 안 씨 뱀 <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의 특수성과 전승 의미』, 『한국무속학』 44, 한국무속학회, 2022.) 본문에 제시한 서사단락은 이 글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차였다. 안 씨 선주는 기민창고의 묵은 무곡들을 사기로 한다.

- ⑦ 그러나 많은 무곡들과 배 안에 금전을 맞바꾸어 옮기는 일이 문제였다.
- ⑧ 안 씨 선주는 우선 기민창고의 쌀로 술을 빚어 나죽 거리 골목마다 걸어 놓고 나주 백성들이 마시도록 만든다. 이때 송 씨 선주와 박 씨 선주는 마을 곳곳을 다니며 술을 빚어 대접한 안 씨 선주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문을 낸다. 술을 대접받은 나주 백성들이 모두 포구로 나와 무곡과 금전을 모두 바꾸어 옮겨 준다.
- ⑨ 배를 띄워 제주로 돌아가려는 찰나 안 씨 선주가 웬 남빛 한복을 입고 갑사맹기를 곱게 두른 아가씨가 대비구니를 들고 배로 오르는 모습을 본다. 이상하게 생각하여 아가씨를 찾아 보아도 오간 자취가 없었다. 일행은 물때가 늦어지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배를 띄운다.
- ⑩ 제주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홀연히 광풍이 일고 큰 파도가 밀어닥쳐 뱃전 밑에 구멍이 뚫린다.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자 안 씨 선주가 하늘에 무사안전을 간절하게 기도한다.
- ⑪ 그러자 가라앉던 배가 신기하게도 다시 물 위를 떠가기 시작한다. 자초지종을 살피니 천구아구테멍이(큰 구렁이)가 미동도 없이 뚫린 구멍 위에 꼬리를 틀어 물이 새는 것을 막고 있었다.
- ⑫ 안 씨 선주 일행은 천구아구테멍이의 덕으로 무사히 제주 조천포구 새룻알에 이른다.
- ⑬ 안 씨 선주는 급히 몸단장을 하고 부인에게 일러 준비한 향불과 청감주를 들고 뱃전으로 가 천구아구테멍이를 조상으로 청하였지만 움직이지 않는다.
- ⑭ 다음날 초·이경이 되자 천구아구테멍이는 스스로 배에서 기어나와 안 씨 선주, 박 씨 선주, 송 씨 선주의 집을 차례로 돌아본 뒤 새룻알로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
- ⑮ 잠든 안 씨 선주 일행의 꿈에 천구아구테멍이가 현몽하여 자신은 나주 기민창의 동서남북 창고 안을 지키던 조상으로 창고의 무곡을 따라 옮겨 왔으며, 집들을 돌아 보아도 마뜩지 않아 새룻알 구멍으로 좌정할 것이라 이른다.
- ⑯ 안 씨 선주, 박 씨 선주, 송 씨 선주는 꿈에 나타난 천구아구테멍이의 말을 따라 각각 상단골, 하단골, 제민단골이 되어 큰곳, 작은곳으로 이 조상을 위하며 생업 번창을 빌었고, 집안 고향에 모셔 두며 철갈이(벨롱갱이), 명절 제사, 기제사에 위하는 부군철성으로 섬겼다.

천구아구데맹이(나주기민창조상)는 안 씨 선주의 재산과 맞바꾼 구홀미 들을 파선(破船)의 위기에서 지켜 낸다. 이러한 면에서 재물을 지키고 불린다는 업신(業神)적 속성을 지녔다고 파악할 수도 있겠다. 이 조상을 고팡에 부군칠성(안칠성)으로 모셨다는 신앙 형태 역시 업신앙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띠는 듯하다.

그런데 업신은 집안이라는 한정된 범주에서 나고 드는 존재며, 그를 상징하는 동물이 떠나거나 죽게 되면 집안의 운수가 막히거나 다한다고 여겨지는 신격이다. 때문에 업을 상징하는 동물이 집안에 모습을 드러낸다면 다른 곳으로 떠나도록 두거나 죽이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믿음이 강하다.⁶⁾ 반면에 <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에서 천구아구데맹이는 어디까지나 “삼년이나 묵어 처분에 골머리를 앓았던 무곡 더미”에 따라 든 신격이다. 무곡 더미를 옮기는 일에 모든 나주 백성들이 앞을 다투어 도왔다는 설정도 업신앙의 특성을 고려하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나 이 조상은 새룻알로 좌정하여 조천리 유력한 당신인 새룻당신(새룻할망, 고냥할망)이 된다. 조천리 새룻당은 해녀와 어부는 물론, 조천포를 오가는 뱃사람들에게 제향을 받을 정도로 유력한 해신당이였다. 본풀이에서도 나주기민창조상은 업구렁이와 달리 용신(龍神)격으로 사유되며, 해신으로서의 제반 직능 또한 두루 갖춘 신격으로 묘사된다. 본풀이 상에 보이는 다음 대목들이 그 단서다.⁷⁾

- (1) 가는 선(船) 오는 선 츠지하고 삼천어부(三千漁夫) 일만잠수(一萬潛嫂) 거느리던 조상
- (2) 오방 요왕(龍王) 스만스천(四萬四千) 용신(龍神) 뒤로 이물선왕(船頭船王) 고물선왕(船尾船王)과 함께 살강기 노래 풍악으로 놀고 싶은 조상

나주기민창조상은 특정 일가(一家)에 좌정하기를 거부하고 새룻알로 좌정한다. 그리고 어부와 해녀를 차지하는 새룻당신이 된다. 보통 제주도 무속에서 뱀 조상은 특정 일가의 조상신으로 ‘부녀자의 치마폭’, ‘태운 사람의

6) 현용준·현승환, 앞의 논문, 40면.

7) 현용준, 앞의 책, 680~681면.

웃가지’ 등에 처음 모셔지며 특정 인물과 인연을 맺기 예사인데, 나주기민창조상은 일가라는 한정된 공간에 좌정하지 않고 해안가의 곳(串), 즉 공공적인 장소에 스스로 좌정하는 특별함을 보인다.

나주기민창조상이 용신과 선양(선왕) 뒤에 따라 드는 신격이며, 살강기(달감기) 소리로 놀리는 신격이라는 신앙적 인식 역시 보편적인 조상신의 면모는 아니다. 이 지점은 나주기민창조상이 용신 또는 해신 계열의 속성을 담지한 대상임을 뚜렷하게 시사한다. 신격을 처음 모시게 되었다는 안 씨·송 씨·박 씨가 모두 ‘선주(船主)’인 정황도 무관하지 않다.

나주기민창조상은 조상신과 당신의 경계, 일가수호신과 생업수호신의 경계를 아우르는 독특한 속성을 지녔다. 세 일가가 충위를 나누어 각각 상단골·하단골·제민단골을 맡았다고 하였다. 각 일가가 따로 또 같이 모신 셈이니 신앙적 전모가 육지부 업신앙이나 제주도 조상신앙(혹은 가신신앙)의 범주에 들어맞지 않는다. 만약 육지부의 업신앙 또는 칠룡신앙을 <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와 관련 신앙의 원류라고 단정하면, 나주기민창조상이 담지한 이 속성은 간과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과연 업신앙과 같은 가신신앙만이 <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와 관련 신앙을 빚어낸 유일무이한 저변이 었는가를 새로이 되짚어 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와 관련 신앙의 형성에 기여한 용신·해신 신앙의 연원을 훑아 볼 단서는 바로 신격 출자 공간인 ‘나주 기민창’에 있다. 현용준·현승환이 논의한 대로 ‘기민창’은 ‘제민창(濟民倉)’의 와음(訛音)이다.⁸⁾ 제민창은 조선조 당시 흑한, 폭우, 폭설 등으로 각 지역에 기근이 들었을 때를 대비하여 이진곡을 확보·저장하여 두었던 교제창(交濟倉)이었다. 제주도는 특별한 기후와 환경 탓에 조선 후기에 큰 기근을 여러 차례 겪었는데, 이런 사정이 조선조 후기 교제창의 설치와 운용에 꽤 큰 영향을 미쳐

8) <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의 역사적 성격과 신앙 연원에 대한 논의는 선행 연구에서 몇 차례 언급된 바 있지만 어디까지나 추론적인 단계에 그쳐 있다. 현용준과 현승환은 제주가 흉년이 든 때 나주의 창고에 저장해 둔 곡식을 운반하여다 구휼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이 본풀이는 그다지 오래지 않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일부 기반으로 형성되었으리란 추정을 더한 바 있다.(현용준·현승환, 앞의 논문, 7면.)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 후기 나주 안창동 제창마을에 제민창(전라 우창)이 실제로 설치되었던 역사 사실과 제민창이 설치되었던 안창동 제창마을 일대의 유력 신앙, 공동체 신앙 양상에 주목하여 해당 논의를 심화하고자 한다.

왔다.

<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와 관련 신앙이 탄생하는 직접적인 배경은 경종 2년(1722)에 공주에서 임피로 옮겨 간 나리포창이 내·외적인 문제로 다시금 65년 만인 정조 11년(1787)에 나주 제민창으로 역할을 넘겨 주었던 사건과 직결된다.⁹⁾ 나주 제민창은 영조 39년(1763) 지금의 안창동 제창마을 일대—옛 羅州牧 新村面 濟倉村—에 설치되었는데,¹⁰⁾ 이 지역 일대의 당산(공동체) 신앙이 용신 신앙과 긴밀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 상의 신격 출자 내력과도 유사하여 면밀히 살펴 기로 한다.

안창동 제창마을의 당산제는 보통 지신당제(地神堂祭)와 사당산제(四堂山祭)로 나뉜다.¹¹⁾ 지신당은 당할아버지가 모셔진 당집으로 당산각 혹은 용진당이라 불리는데, 연구자들은 이 같은 양상이 맞은편에 자리한 양암(仰巖)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조선왕조실록』 등의 고문헌에 따르면, 용진당과 양암은 나주 지방에서 공식적으로 용신을 치제하였던 장소였다.

- (1) 양암(仰巖) 금강(錦江) 남안에 있다. 혹 노자암(鷓鴣巖)이라고도 한다. 그 밑에는 물이 깊어 헤아릴 수 없는데 속설에 용이 있다고 한다. 바위 밑에 구멍이 있는데 조수가 밀려 갔을 때는 보인다. 전설에 명(明) 나라 황엄(黃儼)이 제주(濟州)로 갈 때 압승(壓勝)한 곳이라 한다.¹²⁾
- (2) 용진단(龍津壇) 금강 북안에 있다. 양암(仰巖)과 마주보고 있는데, 본 고을

9) 문광근, 「18세기 전라도 羅里鋪倉의 운영과 변화」, 『역사와 담론』 90, 호서사학회, 2019, 185~195면.

10) 국립민속박물관, <나주용진당제>,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II』. 2009. 나주 제민창은 전라 우창(右倉)이라 불리며 전남 지역 전반의 미곡(米穀) 수납과 운반을 아우르는 역할을 맡았다. 나주 외에도 남평(南平), 영암(靈巖), 무안(務安), 광주(光州), 함평(咸平) 등 5개 속읍들이 영산강의 수운을 따라 무곡을 싣고 왕래하였다고 전한다.

11) 기존 조사에 따르면, 사당산을 용진단(당산각)을 제외한 할아버지 당산과 세 할머니 당산으로 달리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용진단에는 당할아버지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고 한다. 제창마을의 당산제는 매년 정월 초열흘날 음력 밤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지내며, 마을의 액운방지와 마을주민간의 친목도모, 범죄방지, 풍수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오종근, 『나주 지방 구전민간신앙』, 도서출판 鄭, 1977, 225면.)

12)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5권>전라도>나주목(羅州牧)>산천(山川)조.

에서 제사지낸다.¹³⁾

- (3) 나주의 양암 용진단 위관은 양암 용진지신(仰岩龍津之神)이라 썼는데, 위의 제사하는 곳이 물로 백 보 가량이나 막히어, 물에 잠기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으니, 청하건대, 높은 언덕으로 옮겨서 배설해야 합니다.¹⁴⁾

(3)을 참고하면, 양암과 용진당은 신앙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기보다 용신을 숭앙하는 동일한 기반을 지닌 장소로 이해되어야 옳다. ‘용진당’과 ‘용진단’의 음상적 유사성도 그렇거니와 양암과 이곳이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암은 나주 목사가 고려 때부터 제단을 설치하여 봄과 가을에 제사하고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냈던 곳이다. 또 영산강을 이용하여 제주도·진도·흑산도로 건너가거나 멀리 중국 사행길을 떠나는 배들이 무사 운항을 기원하였던 곳이기도 하다.¹⁵⁾ 이와 같이 양암과 용진당은 용신 신앙을 기반으로 한 바다·기우·교역에 관한 해신 신앙의 구심점이자, 안창동 제창마을 일대에서 가장 내력이 깊은 신앙처였다.

한편 제창마을 일대와 주변 지역은 지리적으로 세곡(稅穀)을 운송하기 용이한 수운을 갖추어, 제민창을 비롯한 여러 관창(官倉)들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이 같은 관창들의 존재 여부는 제창마을 앞에 제창포(濟倉浦)가 꾸러지며 뱃사람들의 교역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결과를 견인하게 된다. 제창마을 주변에 설치된 관창들의 위치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과 『나주군읍지(羅州郡邑誌)(1899)』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문헌에 따르면 제창마을 일대에는 ‘제민창’을 비롯하여 ‘동창, 서창, 남창, 북창’이 설치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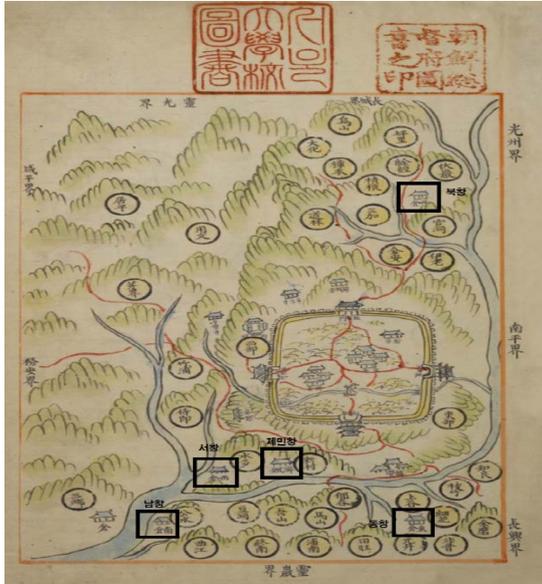
【참고】 창(倉) 다섯 읍내(邑內)에 있다. 제민창(濟民倉) 서쪽으로 40리이다. 동창(東倉) 동쪽으로 30리이다. 서창(西倉) 서쪽으로 30리이다. 남창(南倉) 남쪽으로 40리이다. 북창(北倉) 북쪽으로 40리이다.¹⁶⁾

13)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5권<전라도>나주목(羅州牧)>사묘(祠廟)조.

14)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세종 19년 정사(1437)3월 13일(계묘)>.

15) 나주시지편찬위원회, 『나주시지: 민속·성씨·인물』 제3권, 2006, 277면.

16)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5권, <전라도 나주목(羅州牧): 대동지지(大東地志)>조.



[그림1] 제창마을 일대 지도(『나주군읍지(1899)』 출처: 규장각¹⁷⁾

나주 제민창의 소재지였던 안창동 제창마을의 당산 신앙이 용신을 위한 관제를 치렀던 양암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 점,¹⁸⁾ 양암이 영산강을 이용하여 제주까지 가는 뱃사람들에게 중요한 신앙처 구실을 했다는 점, 제창마을 일대가 제창포를 중심으로 뱃사람들 간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지역이었다는 점 등은 애초에 해당 신격이 용신·해신적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만한 실마리다.

나주기민창조상이 본디 ‘나주 기민창의 동서남북 창고 안을 지키는’ 신격이었다는 설정도 동북에서 채고할 만한 대목이다. 그간 해당 문맥은 ‘제민

17) 제창마을 일대의 제민창, 동창, 서창, 남창, 북창을 강조하는 표식은 필자가 가미한 것이다.

18) 나경수는 본래 제창마을 일대는 수운에 의한 사회·경제적 활동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제민창이 없어진 이후, 육로의 발달 및 토사퇴적의 증가로 인해 하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농경을 위주로 하는 지역으로 바뀌게 되는 변화, 19세기 조운과 관련된 신격이 우신(雨神)으로 확대되는 변화, 용진당이 관제가 아닌 민간신앙으로 편입되는 변화를 거치며 종래에는 당산각에 모셔진 신격이 농경신인 토지신으로 변환되었을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나경수, 『광주·전남의 당산제 연구(Ⅰ): 나주시 영강동 안창리 제창마을 당제를 대상으로』, 『남도민속연구』 5집, 남도민속학회, 1999, 44~46면.)

창'이라는 한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처럼 여겨져 왔다. 하지만 제창마을 일대에 설치되었던 관창들의 분포나 제창마을의 당산(공동체) 신앙과 연계하여 살필 때, 이 부분의 해석을 달리할 여지가 존재한다.

나경수는 제창마을의 사당산이 마을의 동서남북에 있는 양상으로 미루어, 본래 사당신의 실체는 제민창을 수호하는 방위신적 성격을 띤 창고지기 또는 지역수호신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¹⁹⁾ 안창동 제창마을 일대에 제민창을 중심으로 그 사방에 미곡(米穀) 창고가 설치된 정황이나 사당신 신앙의 존재를 볼 때, 나주기민창조상의 내력이 방위를 포함하는 설정은 제창마을에 전승되어 온 민간 신앙의 흔적일 가능성이 크다.

제민창을 포함한 관창들은 세곡 운반의 용이함을 고려하여 수운의 결절지마다 설치되었다. 이 일대에 양암을 구심점으로 한 용신 신앙이 강하게 숭앙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원초적인 해신 신앙이 관창·수운·해로 등의 문체와 결부되며 위계적·역사적으로 분화·파생되어 간 양상을 가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주기민창조상이 지닌 용신적 면모, 해상수호신적 면모, 생업 번창과 같은 재신(財神)적 면모는 가신신앙과 조상신앙, 업신앙과 칠성신앙(뱀 신앙) 간의 신앙 형태적 동질성을 넘어서 안창동 제창마을 일대의 유력 신앙인 용신 신앙에 연원을 두었던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이진곡의 무사 운반을 기원하며 관 차원에서 벌였던 해신제도 <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와 관련 신앙의 형성에 견인되었던 저변으로 보인다. 본풀이 상에서 세 선주가 배를 대었던 '영암 덕진드리 고진배달또'는 '영암의 덕진다리'와 '고달도 선소'라는 두 곳을 뜻한다. '덕진드리'는 영암을 거쳐 나주로 가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다리였으며, '고달도 선소'는 제주와 나주목을 잇는 핵심 포구로서 영암군의 남창(南倉)이 설치되었던 곳이다. 곧 '영암 덕진드리 고진배달또'는 '제주-영암-나주'를 잇는 실제 행로들을 한 데 묶어낸 어구(語句)인 셈이다.

19) 나경수는 제보자에 따라 이 사당산을 할머니 당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바, 제민창이 있었을 당시 사방 수호의 역할을 맡았던 지역수호신 혹은 창고지기신이 역사적·신앙적 변화에 따라 풍요·다산을 불러오는 당산 할머니로 재구성 되는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 제창마을에서 지신당제와 사당신제가 함께 이루어지는 신앙 구성 역시 일반적인 농촌에서 보이는 신적 구성이 아니므로 다른 농촌형 신앙과는 그 기원이 다르다고 하였다.(나경수, 위의 논문, 44~46면.)

특히 고달도 선소는 15세기 중반부터 제주도로 가는 관리들이 배를 탔던 곳이었다.²⁰⁾ 이곳은 영암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를 띄울 때, 길한 풍향을 기다리는 첫 길목이기도 하였다. 이런 까닭에 나주제민창이 설치된 이후인 정조 18년(1794)에는 제주도 이진곡의 무사 운반을 위하여 소안도가 아닌 고달도에서 해신제를 치러야 한다는 장계가 올라 올 정도였다.²¹⁾ 그런가 하면 이 즈음에는 이진곡을 운송하기 위하여 제주도로 배를 띄울 때뿐만 아니라, 무사히 입도한 뒤에도 예조에서 마련한 향축으로 해신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아래 제시한 『일성록』의 기사에서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로 이전하는 곡물을 실어 보낼 때 해신제(海神祭)의 축문을 써서 내린 뒤 항봉(香封)과 함께 경기 감영에서 찰방을 정하여 가져다 전하고 호서와 호남이

20) 류진옥, 『제주도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 전승』,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78~79면.
 21) 제주 세 고을의 수령과 사객(使客)이 왕래할 적에 강진(康津), 해남(海南), 영암(靈巖) 세 고을이 도회(都會)를 분정(分定)해서 각각 1년씩 돌아가면서 거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원래 있습니다. **그런데 사객들이 제주를 출입할 때 대양 영암의 고달도(古達島)에서 바람을 기다리기 때문에, 영암의 경우에는 이진창(梨津倉)에 육방(六房)을 설치하여 접대하고 있습니다.** …(중략)… **제주로 이전할 곡식을 들여보낼 때 해신(海神)에게 제사하는 장소는, 임자년(1792)에 곡식을 옮길 때 소안도(所安島)에 들어서 행하였으니 금년에도 이에 따라 그곳에서 행할 것입니다.** 100여 리 바다를 건너야 비로소 도달할 수 있고, 먼 바다를 가로질러 바람을 기다려야 비로소 떠날 수 있으며, 해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반드시 길일을 택하여 제사를 지내니, 만약 바람이 순조롭지 않은 때를 만나 배를 띄우지 못하면 이미 잡아 놓은 제사날을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게 될 것이며, 더구나 소안도로 들어간 뒤에는 많은 제관들이 섬 안에서 머물게 되어 폐해를 끼치는 것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진(梨津)에서 소안도까지도 100리 바다를 건너가므로 신(神)에게 빌지 않고 배를 출발시키는 것 역시 온당치 못할 듯하니, 이것은 모두 여러 가지 불편한 사정들입니다.** 또 문제가 되는 점은, 소안도는 제주에서 서로 바라보이는 거리에 불과하고 더 이상 막히는 데가 없으므로 한번 바람에 뜻을 달면 닿을 수 있습니다. 만일 소안도에 들어간 뒤에 순풍을 만나게 된다면, 제사를 아직 지내지 못하였다 하여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 바람을 버려두고 배를 띄우지 않을 것임이까, 아니면 제사 전이라도 배를 띄울 것임이까? 이 또한 미리 생각해 두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神)은 어느 곳이든 이르지 않는 곳이 없으니, **이왕 배를 출발시키기 위해 비는 것이라면 마땅히 고달도 해변에서 제사 지내고 나서 배를 출발시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찌 반드시 바다 한가운데서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야 정성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임자년부터 금년까지는 다행히도 왕령(王靈)에 힘입어 일마다 순조롭게 이루어졌지만, 후일의 염려되는 일은 깊이 생각해 두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후에 곡식을 옮길 때에는 각 도회관(都會官)이 바람을 기다리는 곳에 제단을 설치하고, 곡식을 실은 배가 다 도착하기를 기다려 날을 잡아 제사를 지내고서 곧 배를 출발시킨다면 일이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서영보(徐榮輔), 『죽석관유집(竹石館遺集) 6권, 「계(啓)」, <호남유씨별단 갑인년(湖南慰諭別單 甲寅)>.)

차례로 전달하며, 이어 전라 감사에게 유시하여 설날과 배가 돌아와 정박했을 때 차사원 이하에게 술과 음식을 넉넉하게 먹이고, 배가 떠난 날짜와 도착한 상황 및 다시 출발하여 되돌아온 연유를 즉시 장계로 보고하라고 명하였다. 전라 감사 정민시의 장계에, “제주로 이전할 곡물을 각 읍이 실어 보낼 날짜를 택하여 보고해 온 뒤에 향축을 청하겠다는 연유를 이미 급히 장계하였습니다. 방금 나주 등 3개 읍의 첩정을 받아 보니 나주의 이진곡을 실은 배 4척과 영암(靈巖)의 이진곡을 실은 배 3척은 이달 15일에 모두 바람을 살피 도회소로 발송하였고, 함평(咸平)의 이진곡을 실은 배 3척은 이달 17일에 바람을 살피 도회소로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각 읍의 선적이 지금 바야흐로 차례로 거행되어 순차적으로 발송되니 해신제의 향축은 그 왕복 날짜를 계산하면 지금 청한 연후에야 배가 떠날 시기를 놓칠 우려가 없을 것 같으므로 이에 급히 아뢰오니 배가 떠나는 **도회소의 해신제 향축 및 제주에 도착한 후의 해신제 향축을 예조로 하여금 바로 속히 마련하여 내려보내게 하소서.**” …(이하 생략)…²²⁾

<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 서사의 특별함 가운데 하나는 입도한 신격을 청하는 안 씨 선주의 제향이다. 서사단락 ⑫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안 씨 선주는 “연주단발 흐오옴고, 멩게낭 은단숯불 울령도 즈금상을 백가지로 줌 지롱이 께여 청감주를 출려 놓고” 친구아구데맹이에게 “태운 조상이거든 자신의 집으로 모시겠다.”고 한다. 육지부에서 유입된 뱀 조상 본풀이에서 이처럼 신격에게 제향을 드리는 경우는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안 씨 선주가 제향을 드리며 자신의 집으로 신격을 모시고자 했다는 설정은, 나주기민창조상의 특별한 위상, 곧 용신이자 해신으로서의 위용을 강조하였던 흔적일 여지가 크다. 이는 나주기민창조상이 세 선주의 일가에 좌정하는 것을 애초에 거부하고 스스로 새루알에 좌정하였다는 신격 내력을 이해하는 구실을 제공하기도 한다.

시기적으로 나주제민창이 나리포창의 역할을 대신하여 제주도의 기민구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 정조 11년(1787)년 이후, 정조 16년~18년(1792~1794)을 전후하여 제주도 이진곡의 양이 대폭 증가한다. 특히 정조 18년의 경우는 100년만의 기근이라 알려질 정도로 그 정도가 극심하였다고 전한다.²³⁾ 자연스레 당시 제주도로 보급될 이진곡을 저장한 나주 제민창과

22) 『일성록』, <정조 16년 입자(1792)>, 12월 24일(무자).

제주-나주를 잇는 뱀길 또는 수운에 대한 관심은 내·외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연관 신앙 또한 이때에 보다 강력하게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위에 제시한 『일성록』의 해신제 관련 기사 일자 역시 이 시기와 맞물린다.

이런 면에서 <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와 관련 신앙의 저층에는 제민창 일대에서 송양되어 온 강력한 용신 신앙, 이진곡의 운반과 관계된 해신 신앙이 자리한다고 볼 수 있다. <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와 관련 신앙 단골 집단이 모두 선주들이던 정황, 해당 본풀이가 조천리 내의 유력한 해신당이었던 새룻당 설립 내력으로 가닿는 정황도 여기에서 비롯된 신앙적 속성이라 짐작된다.

따라서 나주기민창조상의 새룻알 좌정 서사는 특정 일가의 조상신앙이 공신력을 얻어 당신앙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일반적인 경위를 함의하지 않는 듯하다. 애초에 나주 제민창이 있었던 안창동 제창마을 부근의 용신·해신 신앙은 관제(官祭)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었으며, 후에 마을의 공동체 신앙으로까지 자리매김 하였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이 신앙은 조상신앙 혹은 가신신앙이기보다 공동체 신앙으로서의 성격이 우세하다고 보아야 옳다. 나주 제민창 일대의 용신·해신 신앙과 이로부터 파생·분화된 뱀사람들의 생업 공동체 신앙, 그리고 이진곡의 운반과 결부된 해신 신앙이 조천리에 세거하였던 특정 집단에 의하여 제주도로 유입된 뒤, 기존의 뱀 조상신앙(또는 안·뱀칠성 신앙)과 결합하여 조상신앙으로 정착하였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고 하겠다.

나주 제민창이 제주사람들의 구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시기가 18세기였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신앙의 유입과 정착이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와 관련 신앙이 조천읍 조천리를 세거 지역으로 삼았던 이주민들의 산

23) 『정조실록』에 따르면 정조 9년부터 정조 20년까지 제주도 진휼을 시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정조 8년 겨울~정조 9년 4월(기민 58,960명, 진곡 12,789석), 정조 11년 1월~10월(기민 47,300명, 진곡 8,400석), 정조 13년(319명, 질미 112석), 정조 16년 12월~17년 5월(기민 61,453명, 진곡 22,182석), 정조 19년 1월~5월(기민 725,329명, 진곡 25,905석)이다. 이 같은 결과는 진휼 사업을 종료하고 제주 목사가 그에 따른 보고를 정리한 것이므로 흉년이 발생한 시점은 직전 해이다.(문용식, 『18세기 후반 제주도 기민(飢民)과 진휼 곡물』, 『한국사연구』 186, 한국사연구회, 2019, 43면.)

물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논지에 설득력을 더한다.²⁴⁾ 조천읍 조천리에는 새룻당의 설립 내력을 전하는 유사한 다른 전승이 있으며, 이 전승은 <나주시민창조상본풀이>보다 지역 공동체 내에서 더 폭넓게 향유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나주시민창조상본풀이>와 관련 신앙의 기저에는 나주 제민창 일대에서 널리 숭앙되었던 용신·해신 신앙, 나주 이진곡과 연관된 해신 신앙 등이 자리하고 있다. 다만 해당 신앙은 제주도 유입 이후 더욱 강력한 자신들만의 조상신앙을 꾸리고자 한 전승 집단의 의도를 투영한 채,²⁵⁾ 전승 권역 내에서 특정 집단에 의하여 재편·조정되며 지금의 신앙 체계를 이룬 것이라 하겠다.

III. <토산으드렛당본풀이>:

대망(大蟒) 전승과 금성산 용신 신앙

토산으드렛당 신앙은 외부에 연원을 두고 있으면서도, 제주도 뱀 신앙 가운데 가장 폭넓은 신앙권을 확보하고 있다. <토산으드렛당본풀이>는 꽤 복잡한 서사로 짜여 있는데,²⁶⁾ 이는 신앙이 유입된 뒤 폭넓은 공인을 받기까

24) <나주시민창조상본풀이>와 관련 신앙은 조천리 장 씨 일가와 얽힌 기존의 유력한 공동체 신앙 혹은 조상신앙을 본따고, 동일 관향 성 씨 가운데 유지(有志)로 이름난 특정 일가의 내력을 건인·재편하며 끊임없이 조정되어 온 것이다. 실제로 현재 조천리에서는 새룻당 설립과 관련하여 <나주시민창조상본풀이>와 서사 끝자는 유사하지만 단골 내력은 전혀 상이한 전승이 폭넓게 향유되고 있다. 이현정, 앞의 논문.

25) 같은 맥락에서 나주시민창조상 신앙의 속성을 ‘외부’의 신격이 ‘외부’에 혈연적 뿌리를 둔 인물에 의해 제주도 내부로 수용되는 과정이자, 외부의 정치 권력과 같은 ‘힘’이 마을의 결속력이 약해진 시기, 외부의 힘을 특정할 수 있는 시기에 ‘집안’이라는 특정한 신앙 집단의 ‘일월조상’으로 구체화되는 믿음에서 형성·정착된 것으로 파악한 정진희의 연구가 주목된다. (정진희, 『제주도와 미야코지마 신화의 비교 연구: 외부 권력의 간섭과 신화의 재편 양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61~166면.)

26) <토산으드렛당본풀이>의 서사 끝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처음은 나주 금성산 토지 관인 천구아구데맹이(여신)과 나주 목사의 대립이다. 이 전개에서 신은 목사의 명령으로 놓인 불에 좌정처를 잃고 바둑돌로 변하여 종로 네 거리에 떨어진다. 둘째는 제주도 강 씨, 한 씨, 오 씨가 진상하러 서울에 갔다가 이 바둑돌을 주워 일이 잘 되었지만, 곧 버리자 바람길 이 막혀 배를 띄우지 못했고 결국 점을 쳐 보자기에 든 바둑돌을 위하여 굿을 하니 무사히 입도할 수 있었다는 전개다. 셋째는 토산으드렛당신의 좌정과 강 씨의 딸에게 다친 흉터를

지 주변의 당신앙 또는 조상신앙들과 끊임없이 교류하여 온 흔적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제주사람들은 토산으드렛당신을 ‘토산 귀신’이라 부르며 사전적 정의 그대로의 뱀 또는 뱀신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토산으드렛당본풀이>에서는 토산으드렛당신이 ‘천구아구데맹이’라고 불리는 큰 이루기이며, 달리 대용신으로도 언급되기에 양자 간에 분명한 간극이 있다.

제주도 무속에서 ‘천구아구데맹이’는 용신 신앙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존재다. 심방들이 구연하는 공식구에 따르면 ‘천구아구데맹이’는 “웃아 구린 하늘에 가 부떠 있고 알아구린 지애(地下)에 가 부뜨”²⁷⁾ 거대한 외양을 지닌 뱀신이자 용신이다. 이진곡의 운반, 진상(進上) 등의 일화와 얽혀 전하는 조상신본풀이, 으드렛당신앙의 한 유형인 뱀신과 연관된 당신본풀이, 제주도 큰곳의 한 제차인 <용놀이(갈룡머리)>까지 천구아구데맹이의 신격 유형과 속성은 매우 다양한 분포를 이룬다.

그 중 ‘나주’에 출자처를 두며 ‘천구아구데맹이’로 통칭되는 신격은 ‘나주 기민창조상’과 ‘토산으드렛당신’이다. 신앙 집단이 두 신격을 ‘여신(女神)’으로 사유한다는 점도 같다. 앞서 살폈듯이 ‘나주기민창조상’은 새룻당의 당신으로서 용신·해신 계열의 속성을 띠는 신격인데, 토산으드렛당신도 이 본에 따라 용신적 속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된다는 점에서도 동계를 이룬다.²⁸⁾ 하지만 <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은 ‘나주 제민창’, <토산으드렛당본

풀어내는 방울친(鬚) 등 여타 신앙적 의례가 마련된 기원에 대한 서사다. 이때 토산으드렛당신은 좌정한 뒤에도 자신을 대접하는 사람이 없자, 풍운조화를 일으켜 해상에서 왜선을 파선시키고 한 처녀를 왜적에게 겁탈 당한 뒤 죽게하는 흉험을 내린다. 겁탈 당한 처녀의 원혼은 강 씨 딸에게 빙의되어 병을 일으키는데, 문점을 하여 문제가 된 케 속의 명주를 꺼내 보니 작은 뱀이 말라 죽어 있어, 백지에 뱀의 형상을 그려 놓고 큰곳을 하여 명주를 놀리며 맺힌 간장을 풀며 강 씨 딸의 병이 완전히 나게 되었다. 이런 연유로 토산으드렛당신은 매8일마다 단골들의 제향을 받으며, 당신이자 집안으로 들어서면 일월조상으로 위한다. 이 내력으로 토산으드렛당신을 위할 때는 반드시 명주를 내놀리는 방울친(鬚) 의례가 마련되었다는 정보가 전한다.

27) <으드렛당>, 현용준, 앞의 책, 611면.

28) 아키바(秋葉隆)가 채록한 박봉춘 구연 <토산으드렛당본풀이>에서는 토산으드렛당신을 특별하게 “삼두구미 대용신(三頭九尾 大龍神)”으로 지칭한다.(秋葉隆, 심우성 역, 『朝鮮民俗誌』, 동문선, 1993, 242~243면.) 삼두구미는 제주도 큰곳의 한 제차인 <용놀이(갈룡머리)>에서 놀리는 신격인 아궁이, 갈룡머리(혹은 청룡머리), 천구아구데맹이를 가리키는 이칭이다. 이런 면에서 박봉춘이 구연한 <토산으드렛당본풀이>의 “삼두구미”는 뒤에 덧붙은 “대용신”의 의미와 부합한다. 삼두구미의 용신적 속성은 기존 연구에서 신희림에 의하여 자세하게 다루어진 바 있다.(신희림, 『三頭九尾의 정체와 본풀이로의 수용과정 고찰』, 『한국무속학』 34, 한

풀이>는 ‘나주 영산(靈山) 금성산(錦城山)’에 출자 내력을 둔다는 점에서 양자의 연결 고리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뚜렷하게 밝혀내기 어렵다.

선행 연구들은 토산으렛당신이 보이는 용신적·해신적 속성을 금성산신의 용사(龍蛇)적 속성과 결부하여 해명하고자 힘써 왔다. 금성산을 둘러싼 자연적·환경적 여건이 용신 신앙을 빚어낸 것이라 파악하거나,²⁹⁾ 고려·조선조에 금성산신을 대상으로 벌였던 특별한 의례의 흔적과 인식들을 찾아 그 근거로 삼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³⁰⁾ 그럼에도 여전히 그 해답은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특히 토산으렛당신이 본디 나주 금성산 토지관으로서 나주 목사에게 쫓겨나 ‘금바둑, 옥바둑’으로 변한 채 종로 네거리에 떨어졌다는 설정이 문제시 되었다. 이 같은 신격의 변화를 나주 금성산신 또는 용신과 어떻게 결부시킬 수 있는가가 주요 논의 거리였다.

관련하여 토산으렛당신의 다양한 현현은 본 모습이 특정 집단에 따라 달라져 온 신앙적 인식의 투영이며, 그 중 바둑돌은 목사의 공격으로 쫓겨난 신격에 대한 신앙적 인식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고,³¹⁾ 달리 바둑돌을 금성산의 다섯 사당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있었던 이조당(爾朝堂)의 신체였다는 ‘하얗고 반질반질한 돌’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거나,³²⁾ 여의

국무속학회, 2017.)

29) 아키바는 토산으렛당신은 뱃길을 바람으로 주재하므로 풍우신의 성질이 강하며, 이는 1~2월에 걸쳐 전라도에서 불어오는 북서계절풍이 신격화 된 것으로 보았다. 허남춘도 금성산신은 바다를 가까이 두고 있어 해신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었으며, 때문에 ‘용신’이었을 가능성을 짐친 바 있다. 상대적으로 현용준과 현승환은 토산으렛당신이 실제로 나주 금성산신이 입도하여 좌정한 것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금성산 신앙이 무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꽤 유명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제주 사람들이 나주에 자주 왕래하며 신화 상으로만 나주금성산신과 토산으렛당신이 결부되었다는 판단이다.

30) 홍태환, 앞의 논문.

31) 정진희, 앞의 논문, 153면.

32) “금성산과 관련해 전해오는 남제주군 표선면 토산리의 전설을 보면 “토산분향당의 당신인 뱀이 나주 금성산에서 살다가 옥바둑·금바둑으로 변하여 제주도로 들어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금성산의 산신이 뱀이었을지 모른다. 5곳의 사당 중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던 곳이 이조당인데 당이 있던 곳을 지금도 ‘명당거리’라 부른다. 그곳을 기억하는 노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당은 한 평 남짓한 건물로 하얗고 반질반질한 돌이 신체로 놓여 있었다 하며, 어릴적 그곳은 무서운 곳이라 하여 어른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했다 한다.”(<금성당제>, 나주 민속, 나주문화원 누리집<<http://najuculture.or.kr/na/>> 참조.) 허남춘의 선행 연구에서 이조당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토산으렛당본풀이> 속 바둑돌과의 연관성을 추정하

주를 상징한다는 주장 등도 이루어진 바 있다.³³⁾

구체적으로 토산으드렛당신의 용신적 속성과 바둑돌의 상관 관계는 <토산으드렛당본풀이>의 각편 중 강대원 구연본, 『어우야담』에 전하는 대망(大蟒) 설화에서 톡아 볼 수 있다. 우선 강대원이 구연하는 <토산으드렛당본풀이>에는 전반부에 특별한 서사가 전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데 그것이 우리 제주는 송년든 때야 그 당시에가. 그리고 또 제주에서 이 돈이 있는 사름덜은 육지에 가서 쌀을 받았 와가지고 제주도에서 배고픈 사름덜 팔아주면서 그렇게 허면서 살 땐데. 그때에 제주에 가시오름 표현면, 가시리. 가시리 강 씨 췌안 강 씨. 이제 그 사름과 또 의귀리 남원읍. 옛날 웃귀. 그 의귀리 오 씨하고 균위 오 씨. 또 그 다음에 그 사름덜 들어서 이제 배를 비는 것이 서귀포시 보목리 청주 한집. …(중략)… 이제 그 시절엔데. 옥항상제 그 딸내미가 삼형제네 서이가 내려 왔어요. 어디 내려 왔나믄은 전라도 나주 영산 금성산. 나주 고을 그 부락에 내려 왔어요. 그래서 다 산설 물설을 돌아보고. 삼형제가 큰 딸도 옥항상제 큰딸도 내가 올라가서 쓰면서 살다가 없으믄은 또 내려와서 물엿 올라갓어 준지를. 은준지 금준지 뭐 옥준지 이러 허던데. 그 준지를 물어서 큰딸이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그 두레박을 내려 쫓어요 올라갈라니까. 내려주니까 타고 올라 갔어 올라가고. 들췌딸도 인제 올라갈라니까니 적당히 물어가지고 “아 요거면은 내가 얼마 깐 살다가 또 부족하면은 내려와서 물고기면 뵈다.” 이래 가지고 이제 또 물어서 올라 가고. 셋체 작은 막둥이가 뭐 막내니까 많이 물고 올라가도 아버지 줄 겸 또 못 사는 사람에도 줄 겸 해가지고 이제 많이 물고 올라갓어요. 올라가는데 욕심이 너무 차다 이거야. 욕심이 너무 차니까 거반 즘음 올라갓는데 줄을 끊어 불었어요 가운데로. 그러더니 떨어진 거야. 그때 떨어진 디가 어디 떨어졌나믄은 나주 영산 금성산 전라도. (중략) 거 걸추리 선비 목스가 허는 말이 고히는 심방 보고 “야 올라가서 신이면은 생김풀루추 팔모야강주가 물엇을 거라. 물었냐 들어 봐라.” “알겠습니다.” …(중략)… “안 물엇다고 합니다.” “그것이 뉘 신이 뵈겠냐? 신이라믄은 그런 준지도 물어야 뵈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안 문 신이 어떻게 사름을 살리고 혈 수가 있느냐.”³⁴⁾

는 정도에 그쳐, “지금 금성산과 관련된 어떤 곳에서도 뱀신이었을 단서는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허남춘, 앞의 논문, 35~36면.)

33) 홍태환은 신동훈의 조언을 받아들여 종로 네거리에 떨어진 바둑돌이 여의주를 의미하는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홍태환, 앞의 논문, 198면.)

34) 제주시 오라동 강대원 심방 개인 고향에서 개인 조사를 진행하여 채록한 내용 가운데 일부

강대원본에 따르면, 나주 금성산의 토지관은 옥황상제의 막내딸이다. 이 신은 나주 고을의 ‘준지(진주)’를 너무 많이 물고 하늘로 오르려는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 벌로 금성산에 떨어지게 된다. 본풀이 상에서 준지(진주)는 ‘생검풀루추 팔모아강주’나 마찬가지로 물건인데, ‘생검풀루추’라는 단어의 명확한 뜻은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제주도 무속에서 ‘팔모아강주’는 곧 ‘팔모아광주’로 ‘여의주’와 통용되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본풀이에서는 신격이 이것을 몰지 않아서 문제가 되니, 야광주 또는 여의주를 가졌다는 용신의 위용을 해당 신격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준지’, ‘생검풀루추 팔모아강주’는 값비싼 재물로 인식되는 신물(神物)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강대원 심방에 따르면 옛 심방들은 ‘생검풀루추 팔모아강주’를 “인간이 소유하게 되면 3대는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귀한 것”이라 이야기하였다고 한다. 본풀이 상에 보이는 준지의 성격 역시 이런 특성을 지녔다. <토산으드렛당본풀이>에서 형방들이 바둑돌을 줍자 진상도 수월하게 잘 되고 보답도 많이 받았다는 설정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토산으드렛당본풀이>에 각편에 등장하는 ‘준지’, ‘생검풀루추 팔모아강주’, ‘바둑돌’은 모두 신격의 재산(財神)적 속성을 형상화 하는 대상들이라 할 수 있다.

무속 신앙에서 용신의 대표적인 직능은 풍어(豐漁)와 풍파(風波)다. 이 가운데 특히 풍어와 관련한 풍요신적 속성은 점차 분화되어 가신신앙에서 용신이 재물을 관장하는 신격으로 인식되는 기저를 낳았다.³⁵⁾ <토산으드렛당본풀이> 상의 이러한 설정도 용신의 여러 직능을 복합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라 이해된다. 바둑돌을 버렸더니 바람이 불어 항해를 할 수 없었다는 서사, 바둑돌을 놓고 굶을 하니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서사는 용신 신앙과 불가분의 연관성이 있다.

그렇지만 <토산으드렛당본풀이>와 관련 신앙에 좁은 범주의 용신 신앙만이 그 저류로 관여한 것만은 아닌 듯하다. 『어우야담』에 흥미로운 조명거리가 전한다. 한 화포장이 대망을 칼로 잡아 여러 개의 조승주(照乘珠)를

이다(2021.5.18. 이현정 조사.) 조사 당시 강대원 심방에게 <토산으드렛당본풀이>의 전반부 서사를 익히게 된 경위를 묻자, 고창학 심방에게서 들어 배웠다고 하였다. 고창학 심방은 감산·창천 등지의 서귀포 권역(중문 일대)에서 무업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35) <용신>,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 2』, 2009, 680면.

연고 나라에서 으뜸가는 거부가 되었다는 이야기다.³⁶⁾

- ① 한 가난한 화포장이 중국에 조회하러 가는 행렬에 끼어 뱃길에 오르게 되었다.
- ② 일행은 바다 가운데 한 섬에 이르러 배를 대고 뿔감과 물을 구한 뒤 출발하려 한다.
- ③ 순풍을 타 바닷길로 나서고자 했지만 배가 저절로 빙빙 돌면서 나아가지 않는다.
- ④ 일행이 수액(水厄)이 있는 사람을 가리기 위하여 한 사람씩 육지로 내리도록 한다.
- ⑤ 화포장이 육지에 내리자 배가 빙빙 돌기를 멈추고 앞으로 나아 갔다.
- ⑥ 일행은 화포장을 섬에 남겨 두며 일을 마치고 다시 데리러 오리라 약속하고 떠난다.
- ⑦ 화포장은 섬에서 홀로 지내면서 목숨을 연명한다.
- ⑧ 섬에서는 새벽과 해질녘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섬 안쪽 산이 들썩들썩하더니 산마루를 울리며 무엇인가 바다로 빠져 나간 뒤 다시 바다 한 가운데서 파도를 일으키고 골짜기를 진동시키며 섬으로 들어오는 정체불명의 소리였다.
- ⑨ 화포장이 밤을 살피니 큰 이무기가 있었다. 이무기의 굽기는 커다란 대들보나 뿔목만 했고 길이는 몇백 자가 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이무기가 지나간 길에는 거대한 도랑이 생겨나 큰 배가 드나들 수 있을 정도였다.
- ⑩ 화포장은 큰 갈을 갈아 길 가운 줄지어 세웠다.
- ⑪ 다음날 저녁 큰 이무기가 바다에서 돌아오다가 온 몸이 칼날에 찢려 찢겨졌다. 그러자 이무기의 몸에서 진주와 옥돌, 야광주 따위가 땅에 쏟아져 나와 길에 가득했다.
- ⑫ 며칠이 지나 썩은 이무기의 배를 가르니 크기가 한 치나 되는 조승주가 부지기수였다. 화포장이 풀을 엮어서 진주를 싸니 열 말 크기의 꾸러미로 열 개 남짓 되었다.
- ⑬ 반 년만에 중국에 조회하러 갔던 배가 화포장이 있는 섬으로 돌아온다.
- ⑭ 화포장은 사람들에게 풀로 엮은 조승주를 해변가의 등근 돌이라 속인다.
- ⑮ 돌아온 화포장은 조승주를 시장에 내다 팔아 천하거부가 되었고, 대대로

36) <화포장의 황제>, 유몽인 지음, 신익철·이형대·조용희·노영미 옮김, 『어우야담』, 돌베개, 2020, 576~578면.

그 자손들은 명문가 별족들과 혼인하였다.

화포장이 세워둔 큰 칼 더미에 찢겨진 이무기의 몸에는 진주와 옥돌, 야광주 따위가 쏟아져 나왔으며 그 뱃속에는 열 개 남짓의 조승주가 있었다. <토산으드렛당본풀이>에서 나주 목사에 의해 불길에 휩싸이게 된 나주 금성산신이 금바둑, 옥바둑이 되어 종로 네 거리에 떨어졌다는 설정 역시 이 같은 신앙적·설화적 인식과 맥을 함께 한다. 단지 <토산으드렛당본풀이>의 금바둑·옥바둑은 신격 자체와 동일시 되는 반면, 화포장의 이야기에서는 ‘옥돌’로서 그저 값이 나가는 재화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본래 전하던 신앙적 인식이 인간 위주의 설화적 인식으로 흐르며 수반된 변화로 짐작된다.

특히 강대원본에서 나주 금성산에 떨어진 옥황상제의 막내딸은 준지(진주)를 너무 많이 물어 담는 욕심을 부린 탓에 하늘로 오를 수 없었는데, 이는 <원천강 본풀이>를 위시한 여러 전승에서 여의주가 많아 용이 되지 못하는 이무기의 내력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다. 강대원본에 등장하는 ‘생검풀루추 팔모아강주’는 위의 이야기에서 ‘풀을 엮어 썬 진주’와 상통하는 의미를 지녔을 가능성이 크다. 『어우야담』에서는 이를 ‘진주’ 또는 ‘조승주’라 하였는데, 조승주는 ‘환한 빛이 능히 수레를 비춘다는 보주(寶珠)’를 뜻한다. 제주도 무속에서 곧잘 언급되는 ‘팔모아강주’는 ‘팔모아광주’의 방언형이니 양자 간의 유사성도 뚜렷한 편이다.

이처럼 토산으드렛당신은 사실 상 대망과 연관된 설화적·신앙적 인식과 용신 신앙이 첨예하게 얽혀 있는 속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어우야담』의 이야기에서 대망이 산과 바다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존재로 묘사되는 양상 역시 이런 특성을 담지하는 것이고, 나주 금성산신의 속성 역시 이 같은 용사(龍蛇) 신앙의 복합적인 양태로 신앙민에게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³⁷⁾ 이 때의 대망은 단적인 뱀 그 자체가 아니라 본래 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용신에 가까운 존재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 근거로 신숙주와 관련

37) 홍태환은 토산으드렛당신이 ‘대용신’으로 지칭되지만, 서사 전개 상 야광주가 없으니 뱀에 가까운 신령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다.(홍태환, 앞의 논문, 196면.) 그러나 <토산으드렛당본풀이> 각편과 유사 전승 등을 살필 때, 해당 신격은 야광주 따위를 너무 많이 가져 용이 되지 못하는 대망일 여지가 크다. 그렇기에 오히려 용에 가까운 신령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여 폭넓게 향유되어 온 전승과 그의 출생지였던 나주 금성산과 맞닿은 지역인 금안마을의 역사적·신앙적 자료들을 살핀다.

먼저 신숙주와 관련된 전승은 『어우야담(於于野談)』, 『어우집(於于集)』, 『지봉유설(芝峰類說)』, 『대동야승(大東野乘)』, 『대동기문(大東奇聞)』 등에 널리 실려 있는 “신숙주와 청의동자”에 관한 일화다. 전승들은 모두 신숙주가 젊은 시절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에 만난 청의동자의 도움으로 일생을 위기 없이 순탄하게 살 수 있었다는 내용을 전한다. 아래 각 문헌에 전하는 일화 가운데 몇 가지를 제시한다.

- (1) 신숙주(申叔舟)가 젊었을 때 알성시(謁聖試)를 보러 갔다. 한밤중에 친구와 더불어 성균관에 가던 중 길 가운데서 괴물을 만났다. 그 괴물은 입을 벌린 채 길을 막고 있었는데, 윗입술은 하늘에 닿아 있고 아랫입술은 땅에 붙어 있었다. 같이 가던 친구는 겁을 내고 뒷걸음질쳐서 다른 길로 갔으나, 신숙주는 곧장 입술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 안에는 푸른 옷을 입은 동자 한 명이 있었는데 신숙주에게 절을 하고 말했다. “선비님을 좇아 노닐기를 청하오며, 오직 지시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신숙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때부터 동자는 신숙주를 따라다니며 잠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신숙주가 드디어 과거에 갑과(甲科)로 급제했다. 무릇 (청의동자는) 일에 앞서 길흉 화복에 대해 빠짐없이 말해 주었으며, 그가 인도하는 대로 따르면 불길함이 없었다. 신숙주가 바다를 건너 일본에 갈 때는 바람이 고요하고 파도가 잔잔해 끝내 바닷길을 잘 다녀올 수 있었다. 뒷날 신숙주는 광묘(光廟, 세조)를 섬겨 일등 공신에 책봉되고 정승의 지위에 올랐는데, 동자가 반드시 먼저 길함을 알려 주었다. 신숙주가 죽음에 이르러 동자는 울면서 하직하고 떠났는데, 마침내 얼마 있지 않아 죽었다. 일찍이 고서(古書)를 보니 이 임보(李林甫)에게는 신동(神童)이 있었고 안록산(安祿山)에게는 신병(神兵)이 있었다고 하던데, 아마도 이 같은 부류가 아니겠는가?³⁸⁾

38) <신숙주와 청의동자(申叔舟少時赴謁聖試)>, 유몽인 지음, 신익철·이형대·조용희·노영미 옮김, 앞의 책, 247~248면; 『대동야승』에 실린 내용은 『어우야담』과 별반 다르지 않다. 『대동야승』에 수록된 원문은 다음과 같다. “申叔舟少時赴謁聖試夜半與友同就成均館見路中有一物張口當路上唇着於天下唇接於地同行者惶怖却步取他。路以往叔舟直入兩唇中中有一青衣童子拜而言曰願泛措，大而遊唯所指使叔舟頌之自此童子隨叔舟不少難遂捷鬼，科凡有吉凶莫不先事而告听其指導無有不吉及渡海入日，牽風恬浪靜終致利涉而還其從光廟封首勳位躋台鼎童，子必先其吉及其終也童子泣而辭去未幾而殺嘗觀古書李，林甫有神童安祿山有神兵豈此類也歟。”(『대

(2) 일본은 동해의 가장 깊은 곳에 있으니 해가 뜨는 곳의 뿌리이다. 우리나라와는 삼대해(三大海)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각각의 바다가 3, 4천 리이다. 그 사이에 큰 섬을 끼고 있는 작은 바다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물길로 거리를 헤아리면 거의 수천에서 만 리 길이다. 오랑캐의 풍속이 험준한 지형을 밟고 포악하고 거만하여 세상 바깥의 별개 종족이 되었으니, 바다보다 더 헤아리기 어렵다. 그래서 전조(前朝 고려조)부터 더러 사신을 교환하며 우호를 다졌는데, 명을 받들 적임자를 찾기가 어려웠다. 예전에 신숙주(申叔舟)가 그 나라에 사신 갔다가 당시 정권을 장악한 자들에게 속박되어 사지(死地)로 내몰렸다. 그러나 신숙주는 푸른 옷을 입을 신둥(神童)을 데리고 순조롭게 바다를 건너 다녀왔다. 동래(東萊)로 돌아가 정박하여 당시 정권을 장악한 자가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말하기를, “어찌 바다를 건너간 자는 살았는데 육지에 있었던 자는 죽었는가.”하였다. 당시에 이 말을 들은 자들이 신숙주를 야박하게 여겼다.³⁹⁾

(3) 신숙주는 고려 신씨로, 자는 범용, 호는 보한재다. 세종 경오년에 진사시에 장원하고, 을미년에 문과에 합격하고, 정묘년에 중시문과에 급제하였다. 서장관으로 일본에 들어가니, 그의 재주와 이름을 이미 듣고 시를 구하는 자가 모여들었는데, 시어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니, 뒤에 사신으로 행한 이가 있으면 반드시 신숙주의 안부를 물었다. …(중략)… 『芝峰類說』에서 이르길, 신숙주가 어린 시절에 경복궁 시험에 응시하려 갈 적 이른 새벽 어둡어둡할 때에, 한 커다란 괴물이 입을 딱 벌리고, 귤문 앞에 버티고 있었는데, 모든 응시생들이 다 그 입을 통해 들어가거늘, 신숙주는 눈을 부릅뜨고 당당히 서서 그 괴물을 뚫어지게 응시하였다. 그때 한 푸른 옷을 입은 동자가 신숙주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면서 말하기를, “공은 입을 벌리고 있는 큰 괴물을 잘 보셨습니까? 그것은 내가 호화로써 잠시 괴물을 만들어 공으로 하여금 머물러 서있게 한 것이오.” 하였다. 숙주가 말하길, “너는 무슨 물건인고?”하니, 대답하여 말하길 “나도 역시 사람이오. 공이 봄에 앞으로 큰 귀한 재상이 될 것임을 안 연고로 평생토록 처소를 같이하

동아승』 권9(원문 출처: 한국학 디지털 아카이브<yoksa.aks.ac.kr>)

39) 日本在東海極深。日所出之根。距我邦三三大海。海各三千里。所間有小洋抱大島者不可記。以水程測之。殆數千萬里。夷俗負險。疆梁驚然。爲域外別族。不可測甚海浪。自前朝或通价修好奉使者難其才。昔申叔舟之使其國也。爲當時本柄者所銜勒。俾驅之死地。叔舟挾青衣神童利涉而還纘東萊。聞本柄者已死。乃言曰。是何入海生而處陸死耶。當世間之者薄叔舟(『어우집: 후집』 제3권<序<送回答副使朴典翰 粹 入日本序>)

며 따라다니고자 함입니다.” 하였다. 함께 집에 돌아오에, (청의동자는)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으며, 신숙주가 앉으나 누우나 항상 함께 하여 곁을 떠나지 않았다. (숙주가) 자기의 밥을 나누어주면 훌쩍훌쩍 마시는 소리는 들렸지만 밥그릇은 줄지 않았고, 집안에 일어날 모든 길흉화복과 과거의 합격 여부를 신숙주에게 미리 다 알려주었다. 신숙주가 왕명을 받들고 사신으로 일본에 갈 적에, 청의 동자로 하여금 먼저 뱀길의 깊고 얕음과 육지의 거리를 탐색하여 오도록 시켰기 때문에 뱀길을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다. 이런 까닭으로 무릇 사행길이 있을 때면 (청의동자가 숙주를) 반드시 수행하더니, 신숙주가 죽자 청의동자도 모습을 감추거늘, 신숙주가 자손들에게 유언으로 “따로 청의 동자의 제사상을 차리라.” 하니, 그 자손들은 유언에 따라 신숙주의 제사날이면 특별히 한 상을 차려서 청의 동자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⁴⁰⁾

(1)은 신숙주가 만났다는 괴물의 외양을 “唇着於天下唇接於地”라 기술한다. 제주도 무속에 등장하는 ‘천구아구데맹이’와 완전히 일치하는 외양이다. 석척기우제(蜥蜴祈雨祭), 여타 용 관련 설화 등을 고려한다면 청의동자가 용신의 화신(化身) 혹은 용신의 대리자를 상징한다는 사실도 연관하여 간과할 수 없다. 신숙주의 일화에서도 그가 큰 아가리를 가진 괴물을 겁없이 통과하자 나타났다는 청의동자 역시 신격의 화신이자 또 다른 현현이라 할 수 있다. 청의동자가 거구귀를 다룰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지녔다는 설정도 동일선 상에서 이해할 만한 대목이다.

이 일화에서는 신숙주가 사행직(使行職) 수행을 위하여 일본을 오갈 때 청의동자가 바닷길의 무사안전을 살폈다는 내력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해

40) 申叔舟는 高靈人이니 字는 泛翁이요 號는 保閒齋라 世宗戊午에 壯元進士하고 己未에 文科하고 丁卯에 重試하다 以書狀官으로 入日本하니 聞其才名하고 求詩者 佖集호대 語皆驚人하니 後有使行이면 必問申叔舟安否러라 …(중략)… 『芝峰類說』 少時에 赴景福宮庭試할새 曙色 嚙龍之時에 有一巨物이 張口橫闕門하니 舉子皆從其口入이어늘 叔舟惝然却立諦視하니 一青衣童子挽袖問曰 公이 能見張口巨物乎아 是以吾造化로 故作怪像하야 使公留立이로라 叔舟曰 汝是何物고 對曰 吾亦人也니 見公에 知其大貴相故로 欲爲平生同處隨行이로라 歸家에 不現於他人之眼하고 坐臥起居를 不離其側하고 餘飯을 分與면 有飲啜聲而器則不空하고 家事休咎科場得失을 前期告知하야 叔舟奉使日本에 使青衣로 先探海陸程路하야 無事往返하니 以故로 凡有使行이면 必從行하더니 叔舟歿에 青衣隨闕어늘 叔舟遺命於子孫하야 別設青衣祭하니 其子孫이 每當叔舟忌日이면 別設一卓而祭青衣러라 …(이하 생략)… (<申叔舟青衣挽袖>, 『大東奇聞』 卷一.)

신적 속성을 띤 용신, 토산으렛당신이 내보이는 해신적 속성과 그 결이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1)과 (3)에서 범인(凡人)과는 달리 신속주만이 거구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거나, 그 존재를 알아차리게 된다는 설정은 조상신본풀이나 당신본풀이 상에 흔히 등장하는 ‘태운 조상’, ‘태운 신격’과 ‘단골’의 관계 맺기 설정과 꽤 닮은 꼴이기도 하다. 정의동자가 신속주의 수호신격으로 출세와 안녕 등을 보살피는 역할을 한다는 점,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신속주가 죽은 뒤로 그의 기제사마다 특별한 제상(祭床)을 차려 정의동자를 위하였다는 점 등은 제주도 무속 내의 ‘조상신’의 직능이나 제의 양상과 매우 유사하다.⁴¹⁾

무엇보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신속주가 나주, 그리고 나주 정 씨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 인물이라는 것이다. 신속주는 부친인 신장(申樞, 1382~1433)과 나주의 토착 세력인 정유(鄭有)의 딸이었던 모친 사이에서 태어났다. 실제로 신속주는 나주 노안면 금안리(오룡동)에서 태어나 5세까지 유년시절을 보냈으며, 이후 학문 연구에 몰두할 때에도 종종 자신의 외가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²⁾ 더불어 신속주의 혈연 계보를 따지면, 고려 충렬왕 3년 금성산신의 치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치르게 한 정가신(鄭可臣)이 그의 외가 쪽 선조(先祖)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⁴³⁾

41) 제주도 조상신에 대한 제의 가운데 가장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일 제사와 명절제다. 집안에 따라서 제사 때마다 안창고에 따로 작은 상을 차리는 경우, 문전상과 같이 제사상 옆에 상을 차리는 경우 등이 있다.(류진욱, 앞의 논문, 3~4면.)

42) 신속주는 세조~선조 연간에 걸쳐 나주 노안면 금안리 수각마을의 쌍계정(雙溪亭)에서 정서, 신말주, 홍천경 등이 학문을 닦으며 교유하였다고 전한다. 쌍계정은 고려 충렬왕 때의 문신 설계(雪齋) 정가신이 후학 양성을 위하여 지은 것이며, 금안리라는 명칭은 정가신이 명문장으로 원 황제에게 금으로 된 말안장을 하사받았다는 일화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 금안리는 나주 정 씨 집성촌으로 알려져 있으며, 호남 3대 명촌 중 하나로 손꼽힐 만큼 그 위상이 크다.<금성산>, 나주문화원 누리집(<http://najuculture.or.kr/>) 참조.)

43) (정가신이) 고종 때에 등계(登第)하여 여러 번 화요(華要)한 벼슬을 지내고 충렬왕 3년에 보문각 대제(寶文閣待制)를 제배(除拜)하였다. 나주 사람이 칭하기를, 금성신이 무당에게 실려 말하기를, “진도(珍島), 탐라(耽羅)의 정벌(征伐)에 내가 실상 많은 힘을 썼는데, 장수와 군사에게는 상주고 나에게는 녹(祿)도 주지 않는 것은 어찌합이나? 반드시 나를 정녕공(定寧公)으로 봉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정가신이 그 말에 미혹되어 왕에게 간(諫)하여 (금성산신)을 정녕공으로 봉(封)하고 또 그 읍록(邑祿)의 쌀 5석을 걷어 해마다 산신의 사당으로 보내 주게 하였다.(高宗朝登第, 累歷華要. 忠烈三年, 除寶文閣待制. 羅州人稱, “錦城山神, 降于巫言, ‘珍島·耽羅之征, 我實有力, 賞將士而不我祿, 何耶? 必封我定寧公.’” 可臣惑其言, 謏王封定寧公, 且輟其邑祿米五石, 歲歸其祠.) 『高麗史』 105, 「列傳」, <鄭可臣傳>.)

금성산신과 금안리의 토착 세력이었던 나주 정씨의 상관성, 그리고 이와 당대의 최고 수재(秀才)로 세간의 술한 주목을 받았던 신숙주와 정의동자 일화의 연결 고리는 당시 나주 금성산 신앙의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방증한다. 동시에 나주 금성산 일대는 용신 신앙이 유력한 곳이었으며, 이것이 토착 세력들의 공동체 신앙이자 조상신앙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는 추정 역시 가능케 한다.

이 같은 신앙의 흔적은 이 일대의 민간 신앙으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조사에 따르면, 금안리 내에서도 쌍계정을 품고 있는 수각마을은 99폭의 병풍산이 둘러 있으며 7월 백중날 샘굿과 매우 유사한 돌림제를 지냈다고 한다. 또한 쌍계정은 금성산으로부터 내려온 계곡이 양쪽으로 나뉘어 흐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다.⁴⁴⁾ 금안리의 민간 신앙 등에서 수신, 용신과의 연관성이 뚜렷하게 접쳐지는 셈이다.

그러므로 <토산으드랫당본풀이>의 신앙적 저층에는 용신의 면모를 지닌 대망의 속성, 나주 금성산신과 연관된 용신 신앙적 저변이 자리한다고 하겠다. 다만 본풀이 상에서 이 같은 신격이 ‘명주에 말라붙어 죽은 작은 뱀’이나 뱀 그 자체로 치환되어 나타나는 양상은 달리 생각할 거리다.

아마도 이는 해당 신앙이 제주도로 유입된 뒤에 토착적·자생적인 뱀 신앙과 혼효되거나 일반신 체계에 편입된 용왕 신앙(용신 신앙) 간의 길항 과정을 겪으며, 그 본래적 연원은 변모되고 지금의 신앙적 양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토산으드랫당본풀이>의 서사는 당신본풀이 가운데서도 실로 복잡한 편이다. 서사맥락 간의 관계를 쉬이 판단하기 어려운 까닭 역시 여기에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IV. 맺으며

이 글에서는 제주도 뱀 신앙을 대표하는 <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와 <토산으드랫당본풀이>를 대상으로, 두 신앙의 연원 기반을 조선조 나주목 일대의 용신 신앙과 연계하여 살폈다. 용신 신앙의 실제와 전모는 다양한

44) 오종근, 앞의 책, 225면.

역사적·민속적·문헌적 자료들을 증거 삼아 구체화 하는 방식을 택하였는데, 그 결과 두 신앙의 신앙적·역사적 외부 기반인 용신 신앙의 흔적들은 각 본풀이 상에서 신격의 특별한 속성으로 형상화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와 관련 신앙의 연원은 그동안 대개 업 신앙의 범주라는 한정된 이루어 왔다. 하지만 실제 나주 제민창이 설치되었던 안창동 제창마을 일대의 공동체 신앙 양상과 나주기민창조상이 담지하는 해신적·당신(堂神)적 속성을 견주어, 이 특별함이 본래 신앙적 저층인 용신·해신 신앙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었다.

실제로 조선조 나주 제민창의 소재지였던 안창동 제창마을 일대의 양암과 용진단은 나주 지방에서 공식적으로 용신을 치제하던 장소였다. 그리고 민간 신앙에서도 유력 신앙으로 자리매김하며, 당산(공동체) 신앙의 형성과 구성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에서 안 씨 선주가 입도 후에 신격에게 제향을 드리는 특별한 서사 역시, 이진곡을 수송하며 승·하선 시에 벌였다는 해신제와 뱃사람들의 생업 신앙 등이 그 역사적·신앙적 기저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토산으드렛당신본풀이>와 관련 신앙의 연원은 천구아구테메이(토산으드렛당신)와 바둑돌의 상관 관계를 매개할 수 있는 신앙적·문헌적 자료에 근거하여, 그 저류에 용신적 속성이나 용신 신앙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만한 인식이 있는가를 살피는 것으로 톤았다.

우선 강대원이 구연하는 <토산으드렛당본풀이>의 특별한 전반부 서사, 『어우야담』에 전하는 화포장의 횡재 이야기에서는 대망(大蟒)을 소재로한 설화적·신앙적 인식이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었다. 두 전승은 <원천강 본풀이>를 위시한 여러 전승에서 여의주가 너무 많아 용이 되지 못하는 이무기 전승과 맥을 나란히 한다. 바둑돌로 변한 신격과 입도한 뒤에 다시금 여신으로서의 모습을 갖춘 신격은 모두 바닷길의 풍운을 주재하는 능력을 보이고 있다. 이 또한 용신(해신)적 면모로 이해되어야 할 대목이라 판단하였다.

나아가 나주 금성산과 얽혀 전하는 전통적·토착적 용신 신앙의 흔적을 야담류에 전하는 신숙주의 일화와 금안마을의 용신 신앙에 근거하여 살폈

다. 세간에 신숙주는 거구귀(巨口鬼)로부터 출현한 청의동자의 도움으로 일생을 어려움 없이 살았다고 전한다. 문헌에 묘사된 거구귀는 ‘천구아구데맹이’, ‘청의동자’는 조상신의 직능을 지닌 신격과 다를 바 없었다. 무엇보다도 신숙주가 나주, 나주의 토착 세력인 나주 정 씨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 인물이라는 역사적 사실에서, 용신 신앙이 이 일대 토착 세력들의 공동체 신앙이자, 조상신앙으로서 숭앙되었다는 추정을 더할 수 있었다. 신숙주가 거쳐하였다는 금안리의 민간 신앙에서도 샘굿 등과 유사한 제의가 전승되었다고 하여, 용신과의 연관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두 신앙은 나주목 일대의 토착적·전통적 용신 신앙을 저류로 두되, 제주사람들과의 신앙적·역사적 교류에 따라 관창(官倉), 수운(水運), 교역(交易), 해로(海路) 등의 문제와 결부되어 제주도 무속 체계 안에 편승하였다는 점에서 동질성을 띤다.

이에 두 신앙은 애초부터 단적으로 가신신앙 또는 뱀 신앙을 연원으로 두었다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오히려 연원인 용신 신앙 자체가 제주도로 유입된 뒤 기존의 토착적 뱀 신앙 또는 선주민들의 뱀 신앙과 결합하면서, 지금과 같이 더욱 다채롭고 복합적인 신앙 체계와 본풀이가 갖추어졌을 여지가 크다. 그러므로 <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와 <토산으드렛당본풀이>의 신격(천구아구데맹이)는 단적인 뱀 그 자체는 아니며, 본디 용신에 가까운 존재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신앙 형성에 영향을 끼친 외부 기반만을 다루었다는 한계가 있다. 신앙적 연원에 대한 외부 기반뿐만 아니라, 유입 이후 신앙의 형성·전승되어 온 소종래를 신앙권, 전승집단 등의 내부 기반과 연계·확장하여 다룰 때 보다 온전한 고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별도의 작업을 요구하기에 다음 면면을 기약한다. 연원이라 할 수 있는 신앙들의 역사적·민속적 재구는 사실 상 현전 자료의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근거를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많은 부분을 추론에 의지하게 된 논지 흐름도 이 글의 문제다. 하지만 그간 <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와 <토산으드렛당본풀이>의 신앙적 연원을 실재하는 장소 내지 신앙, 다양한 역사·문헌 자료들에 단서하여 재구하였던 논의는 없었다. 부족하게나마 이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신증동국여지승람』
『조선왕조실록』,
『죽석관유집』
『일성록』
『대동야승』
『어우집』
『大東奇聞』
『高麗史』
『나주군읍지』

유몽인 지음, 신익철·이형대·조윤희·노영미 옮김, 『어우야담』, 돌베개, 2020.
秋葉隆, 심우성 역, 『朝鮮民俗誌』, 동문선, 1993.

나주문화원 누리집 <<http://najuculture.or.kr/na/>>
한국고전종합DB <db.itkc.or.kr>
한국학 디지털 아카이브 <yoksa.aks.ac.kr>

2. 단행본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Ⅱ』, 2009.
_____,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 2』, 2009.
김현신·현용준·강정식, 『제주도 조상신본풀이연구』, 보고사, 2006.
나주시지편찬위원회, 『나주시지: 민속·성씨·인물』 제3권, 2006.
샤머니즘사상연구회 엮음, 양종승, 『금성당(錦城黨)』, 『샤머니즘과 신당』, 민속원, 2020.
오종근, 『나주지방 구전민간신앙』, 도서출판 鄭, 1977.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도서출판 각, 2007.
나경수, 『광주·전남의 당산제 연구(I): 나주시 영강동 안창리 제창마을 당제를 대상으로』, 『남도민속연구』 5집, 남도민속학회, 1999, 27~50면.
류진옥, 『제주도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 전승』,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문광균, 「18세기 전라도 羅里鋪倉의 운영과 변화」, 『역사와 담론』 90, 호서사학회, 2019, 163~201면.
- 문용식, 「18세기 후반 제주도 기민(飢民)과 진휼 곡물」, 『한국사연구』 186, 한국사연구회, 2019, 29~68면.
- 박홍주, 「서울 마을곳의 유형과 계통」, 『한국무속학』 12, 2006, 119~175면.
- 신호림, 「三頭九尾의 정체와 본풀이로의 수용과정 고찰」, 『한국무속학』 34, 한국무속학회, 2017, 137~162면.
- 이현정, 「조천리 순흥 안 씨 댁 <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의 특수성과 전승 의미」, 『한국무속학』 44, 한국무속학회, 2022, 211~242면.
- 정진희, 「제주도와 미야코지마 신화의 비교 연구: 외부 권력의 간섭과 신화의 재편 양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허남춘, 「칠성과 부군(府君) 신앙, 뱀 신앙」, 『비교민속학』 58, 비교민속학회, 2015, 11~46면.
- 현용준·현승환, 「濟州道 뱀神話와 信仰 研究」, 『耽羅文化』 15號,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5, 1~74면.
- 홍태한, 「서울곳 신령 '금성'의 정체성 고찰」, 『실천민속학연구』 13, 실천민속학회, 2018, 179~204면.

A Study on the Origins of Jeju Island's Snake Faith from Naju
- Based on the connection between the Dragon faith
in Naju-mok area of the Joseon Dynasty -

Lee, Hyun-jeong

Cheonguagudemengi, the deities of *Nejugiminchang-josangbonpuri* and *Tosanyodret-Dangbonpuri*, which represent Jeju Island's snake faith, is not a straightforward snake itself, but is close to a dragon Deity. This article unravels the reason by examining the origin of the two faiths in connection with the Dragon faith in the Naju-mok area. The process of revealing the reality and full picture of the Dragon faith involved in the formation of each faith compared historical, folk, and literary materials related to this based on the space described in Bonpuri and the unique attributes of Deity.

First of all, *Nejugiminchang-josangbonpuri* and related beliefs prioritized the explan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ity, which are ancestral gods and have the appearance of you and the god of sea. Jechang-Village in Anchang-dong, where Naju Jeminchang was established, has been a place where the faith of the dragon Deity, centered on Ang-am and Yongjindan, has been highly revered since the Goryeo Dynasty. This traditional and indigenous Dragon faith was derived and differentiated faithfully in relation to JeMin-chang, Gwan-chang, water transport, and trade in future generations, and served as the origin of *Nejugiminchang-josangbonpuri* and related faith. In addition, the sea god festival, which was held when ships carrying Ijingok to Jeju entered and departed, also served as the basis for formation, leaving Bonpuri as a trace in the narrative.

Tosanyodret-Dangbonpuri and related beliefs revealed the religious origin of dragon through an explanation of the transformation of God, that is, the correlation between Cheongu- Agu-demeng-i and baduk stone. It found clues in the special first half of the story, the story of Dae-mang contained in *Emyadam*, the anecdote of Shin Sook-ju, and the folk belief of Geum-an-Village. *Tosanyodret-Dangbonpuri* are related

to the long-cherished desire to become a dragon due to your greed for cintamani, and at the same time, you have a marine attribute that presides over the wind and cloud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onnection between Shin Sook-ju and Naju's indigenous forc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lk faith and the dragon faith in Geumseongsan Mountain in Naju, This suggests that the belief in Geumseongsan Mountain in Naju was already achieved in the form of a combination of dragon and snake faith at that time.

Based on the indigenous and traditional Dragon faith in Naju-mok area, the two beliefs are homogeneous in that they have been introduced into the shamanic system of Jeju Island, linked to problems such as Gwachang(官倉), water transport, Trade, and a sea route etc, according to religious and historical exchanges with Jeju people and gradually completed their appearance as faith. Therefore, it cannot be concluded that the two faiths were derived from the House Spirit Belief or snake faith from the beginning. Rather, after the dragon faith, which is the origin, flowed into Jeju Island, and combined with the existing indigenous snake faith or the snake faith of the natives, there is a lot of room for a more colorful and complex faith system and main pool.

Keyword: Jeju Island, Snake faith, Dragon faith, *ChunGu-agu-demeng-i*, *Najugimindang-josangbonpuri*, *Tosanyodret-Dangbonpuri*, *Na-ju JeMindang*, Jechang Village in Anchang-dong, Ang-am stone, Mount Geumseong in Naju, Geum-an Village, Shin-Sookju

접수일자: 2022. 3. 31.
 심사기간: 2022. 4. 1.~2022. 5. 10.
 게재결정: 2022. 5. 10.

